

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

2017. 9. 22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기본 추진방향	1
II. 세부 지원방안	1
① 취약부문 자금애로 해소	1
② 연휴 기간중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	3
③ 금융거래 유의사항 홍보	5
④ 금융사고·사기 예방	6
⑤ 연휴 기간중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	8

I. 기본 추진방향

◆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

- ❶ 추석 명절을 전후한 중소기업·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특별 자금지원·보증 확대 (기 시행중)
- ❷ 긴 연휴기간 중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,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
- ❸ 금융사고·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·점검하고,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 체계 유지

II. 세부 지원방안

1. 취약부문(중기·서민) 자금애로 해소

◆ 중소기업·자영업자의 추석 명절 자금수요 확대에 대비하여, 정책금융기관·미소금융 등을 통한 특별 자금지원·보증 확대

- ❶ 국책은행(산은·기은)을 통해 총 11조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
(산은, 기은) 추석 명절 자금공급계획

신규		만기연장		합계
기은	산은	기은	산은	
3.0조원	1.2조원	6.0조원	1.0조원	11.2조원
4.2조원		7.0조원		

-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·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명절 30일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집행
* 지원기간 : '17.9.4일 ~ 10.19일 (명절 前 30일 ~ 명절 後 15일)
- 운전자금(기은 1조원), 경영안정자금(산은 2,000억원)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
- 결제성 자금 신규 공급액(기은 2조원)의 경우 0.3%p 내 추가적 금리를 감면하는 등 금융혜택을 제공

- ❷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* 예상되는 대금 결제,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4.6조원의 보증을 공급

(신보) 추석 명절 보증공급계획

신규	만기연장	합계
1.3조원	3.3조원	4.6조원

-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9.29일까지 조기 지원하고, 그 외 기업은 10.10일 이후 발급 조치하는 등 선제대응 추진
* 지원기간 : '17.9.4일 ~ 10.19일 (명절 前 30일 ~ 명절 後 15일)
 - 하반기 신규보증 계획(4.25조원)의 30%에 해당하는 1.3조원을 연휴기간 중 집중 지원하고,
- 지원 기간 중 만기 도래하는 기존 보증 3.3조원도 적극적으로 만기연장 조치
* 지원기간 중 만기 도래예상액(3.5조원) × 만기연장률(93.3%)
 - 현재 운용 중인 각종 특례·우대 보증제도*를 활용하여 보증료, 보증비용,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혜택을 제공
* 고용창출특례보증, 수출중소기업특례보증, 창업기업우대보증 등
- ❸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상인 명절긴급자금 지원*을 통해 성수품 구매를 위한 긴급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
- *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 : 전국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상인회를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
 -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약 70억원*의 지원자금을 공급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
* 지원실적 : ('16년) 설 43.7억원, 추석 44억원 / ('17년) 설 48.4억원

< 지원 내용 >

- ◆ 지원금액 : 상인회별 2억원 이내, 1인당 1천만원 이내
- ◆ 대출기간 : 5개월('17.9.1일~'18.1.31일) / ◆ 금리 4.5% 이내
- ◆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(日, 週, 月) 또는 만기일시

- 기초지자체 및 상인회에 명절자금 신청 안내문을 既 발송(7월) 하였으며, 접수·심사* 후 9.1일부터 명절긴급자금을 지원 중
*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(연체율 20% 이하)한 우수시장

2. 연휴 기간중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

- ◆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,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추석연휴 자금 확보 등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
- ※ 대출·연금·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「민법」에 따라 만기·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(10.10)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

가 대출

- 대출 만기가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
- ①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.29일에 '조기상환수수료 없이' 조기상환 허용
 - * 다만,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 필요(은행 안내 예정)
- ② 만기연장 없이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인터넷 (모바일) banking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상환 가능토록 함
 - * 연휴기간 중 대출상환 방법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 회사에 사전 문의 필요
- ③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.10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

나 퇴직연금, 예·적금

- 퇴직연금,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(9.29일)에 우선 지급
 -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.29일에 자금을 先지급
 -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*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
 - * 예 : 해외펀드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은 통상 7영업일 전 지급신청 필요
 - ** 다만, 상품 조건 등에 따라 10.10일 이후에만 지급가능한 경우도 존재 (금융회사가 관련 고객에게 개별 안내 예정)

- 예금은 약정이율로 10.10일까지 연장되나, 상품에 따라 조기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前영업일(9.29일)에도 예금인출 가능함을 안내

다 그 외 금융거래

- B2B 거래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예정·예상되는 고객에게는 사전 자금 인출, 인터넷뱅킹·자동화기기(CD/ATM) 한도 증액 등을 안내
- 그 외 카드결제대금 납부 등 주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 회사가 지급·결제일의 변동을 고객에게 상세히 안내

< 주요 안내사항 >

- ◆ (결제대금) 카드·보험·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은 10.10일날 출금됨
- ◆ (보험금 수령)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*가 있는 바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
 - * 실손보험은 3영업일, 자동차보험은 7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 필요
- ◆ (펀드환매대금 인출)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*가 있는 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
 - * (국내투자펀드) 통상 3~4영업일 前 환매신청 필요(주식형 4영업일 3시前, 채권형 3영업일 5시前)
 - (해외투자펀드) 예정된 환매일정에서 하루씩 환매일이 늦춰질 수 있음

3. 금융거래 유의사항 홍보

- ◆ 이동점포 등 추석연휴에도 영업하는 점포 정보에 대해서도 상세히 공개·안내하여 추석연휴 긴급한 거래소요에 대응
- ◆ 금융회사별로 고객 민원 핫라인을 마련하고 추석 연휴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홍보하여 혼란 최소화

- ① 추석연휴 중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**탄력점포**, **이동점포** 운영 현황은 금감원 보도자료 등으로 통합적 안내

< 연휴중 점포운영 현황 >

- ◆ (탄력점포) 주요 역사, 공항,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추석연휴 중에도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,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
- ◆ (이동점포) 추석연휴 기차역·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8개 은행 14개 이동점포가 골고루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

- ② 추석연휴 기간 중 고객 민원 및 불편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별 민원 핫라인(Hot-line)을 구축·운영

- 금융회사별로 핫라인 이용 방법, 추석연휴기간 휴무 내용 및 유의사항을 이메일, 입간판,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
- 콜센터, 민원실 담당 인력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

- ③ 신·기보,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추석연휴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개별 사전통지·안내

- ④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,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도 협조 요청 (은행연합회)

* 10.2~10.9일이 부동산 거래일인 고객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금융회사 휴무 사실, 거래대금 사전 필요성 등 대응요령을 개별 전파 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 요청

4. 금융사고·사기 예방

- ◆ 추석 연휴 전후로 금융사고 및 불법금융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고,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사전 점검·보완
- ◆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, 금융사고 등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조속한 피해구제 도모

가 금융보안 체계 구축

- 국내외 금융권 사이버 위협*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

* 북한·중국발 사이버공격, 금융회사 ATM기기 해킹 등

-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보안관계 현황 및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상황을 철저히 점검
-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-금융보안원-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·전파체계 유지

나 금융회사별 내부통제 점검

-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·보완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

- 영업점 CCTV·비상벨 작동상태를 점검하고, 현금 등의 보관·수송 관련 안전대책이 충분한지 확인
- 추석연휴 중 ATM, CD기 등 자동화기기의 현금 부족 또는 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수칙 마련

- 인터넷 뱅킹, 카드·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시 대응 방안을 구축

- 특히,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·시행

다 금융사기 예방 홍보 강화

- 금융사기 유의사항 전파를 위해 대국민 홍보 문자(SMS) 발송
 -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방지 유의사항을 포함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(9.18~9.29, 방통위)
 -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 사례 발생시 소비자정보 발령

< 문자메시지 내용 >

- ◆ (예시1)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거나 저금리로 정부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기전화나 사기문자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(예시2) 추석 연휴중 택배회사 선물 배송이나 명절인사를 빙자한 사기 문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 금융사기 신고센터 운영

- 국민들의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감원 '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국번없이 1332)*' 운영

* 불법고금리, 미등록 대부업, 불법 채권추심,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관한 신고센터

** 명절 기간중 상담전문역 1인 및 일반직원 1인(2인 1조) 근무

- 운영일자 : '17.10.1.(일) ~ 10.9.(월) (단, 3~5일 및 8일 제외)
- 이용시간 : 09:00 ~ 17:00 (단, 1~2일은 10:00~17:00)

- 개별 금융회사 역시 각 회사별로 금융사기, 금융사고 발생시 긴급신고센터를 운영

5.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

- ◆ 추석연휴 기간중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, 상황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

- 추석연휴 동안에도 북한 리스크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전개방향에 따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
 -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·核실험*에 따라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제기
- * ICBM급 미사일(7.28일), 단거리 미사일(8.26일), 중거리 탄도미사일(8.29일, 9.15일), 6차 핵실험(9.3일) 등
- 10월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개시에 이어 ECB의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예상
-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된 이벤트라는 점에서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,
 - 외국인 자금 유출, 환율·금리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상황

* 외환보유액 : 3,838억불('17.7월말) * 세계 9위 수준
 *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: (08말)74.0%→(17.3말)30.7%
 * 경상흑자 : ('16년)986.8억불, ('17.上) 362.7억불
 * 정부부채 : GDP대비 38.3%('16말, 잠정) * 선진국 평균 106.5% 수준
 * 재정수지 : GDP대비 1.0%('16말) * 선진국 평균 △2.9% 수준

- 기재부·한은·금감원 등 관계 기관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*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
 - * 시장이 열리는 美·日·유럽 등 주요국 금융시장, 역외시장에서의 외환 거래·外人 자금 유출입 등
- 상황발생시 위기대응계획(Contingency Plan)에 따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